

일 주 문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조선 왕실의게 환수 공로로 12월 3일 외교 통상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나를 찾는 용맹정진' 진행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내 금차선원에서 '나를 찾는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법륜 스님 300강 회향
법륜 스님의 희망세상 만들기 300강이 11월 29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 강연을 끝으로 회향했다.

상담개발원 송년 감사의 날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11월 30일 서울 사진치료연구소에서 2012 송년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불교문예 작품상 수상
제7회 불교문예작품상 수상 작품으로 시인 홍영철 씨의 <파가니니를 위하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7일 인사동 대성 한적식에서 진행된다.

“일반 어린이도 즐길 프로그램 개발”

대불어 회장 선출된 성행 스님

“어린이 포교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스님·지도자들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산하 단체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회장으로 성행 스님(정계사 주지·사진)이 취임했다.

성행 스님은 “20여 년간 어린이포교활동을 했는데 전임 회장인 심산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포교에 헌신해 오신 스님들의 뜻을 이어 더욱 발전하는 대불어 회장이 되겠다”며 “특히 이번에 출범한 에그리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목, 포교부장)와 동원(이사장 심산, 부산 흥법사 주지)은 11월 24~25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제5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연꽃처럼 꿈고 향기로운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열린 연수회는 동원 산하 단체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어린이 불교교육연구소 △대한불교교사대학 △동원동화구연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벗 풍경소리가 주관해 어린이 포교에 대한 지도자 자질향양과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 출범한 에그리나 통해 세계문화유산 체험 등 전개

이날 대불어 회장 심산 스님의 후임으로 취임한 성행 스님은 새로 출범한 사단법인 에그리나(이사장 심산) 상임이사직도 함께 맡아 어린이포교에 나선다. 성행 스님은 “동원이 종교단체다 보니 포교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영역확대가 어려웠다”며 “이번에 에그리나를 아동청소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대불어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문화 사업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했다. 성행 스님에 따르면 에그리나에서 실시하게 될 주요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과 문화적 치유를 체험하는 ‘나를 찾는 학교’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동원이 자체 개발한 ‘배낭 대고 세계 문화유산을 찾아서’ 등으로 일반 청소년들도 동참하도록 이끔 계획이다.

또한 에그리나를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등 국가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는 청소년 관련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원봉사, 국제문화 교류, 환경 보전, 영·유아 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성행 스님은 “일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포교 사업이 타종교에 비하면 시작이 늦은 편이지만 앞으로 에그리나 각 지부를 설치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대불어는 매년 여름·겨울 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는 지도자들 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종단과 신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죽음은 머물다 옮겨가는 것”

정목 스님, 웰다잉실천교육 심화과정 회향법문

“죽음은 무엇이 끝났다가, 막이 내렸다가 나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하는 한 형태일 뿐입니다.”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인 정목 스님은 아름다운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웰다잉운동본부는 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웰다잉실천교육 심화과정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됨: 행(行)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의 마지막 날 정목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목 스님은 “죽음을 사실과 아픔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간다”며 “우주가 알아서 결함했다가 해체되는 과정일뿐이다. 유기체인 인간 몸통이도 740조 개 세포가 있는데 강한 것도 있고 약한 세포도 있고 이 순간 죽어가고 새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인연법을 분명히 인식해야 웰다잉 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가 말하고 그 소리를 듣기까지 과정을 세세히 따져보면 조건과 원인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서양에서 말하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식의 단순 논리로 인연법을 이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죽은 뒤 옮겨갈 영혼이 있다는 힌두교식 발상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목 스님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거나 옮겨다니는 영혼 자체가 없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져 태어난다고 한다”며 “죽음은 양초에서 다른 양초로 불을 옮겨 붙이듯, 우주에서 버터와 치즈가 나오듯 개체가 다 다르면서도 또 같은 그런 현상과 같다. 즉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정목 스님은 명상에 대해 강조하며 “명상을 통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들기 직전 생각이 내일 아침 첫 생각이 된다. 숨을 거둘 때의 생각이 다음 생의 생각으로 연결된다. 한 생각을 잘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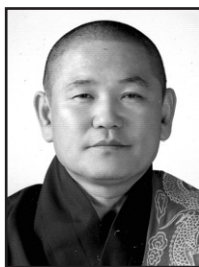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인 정목 스님은 “죽음을 사실과 아픔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원로원장 덕산 스님 입적

11월 30일 새벽 지병으로, 장례는 5일장

천태종 원로원장 덕산(德山) 스님이 11월 30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입적했다. 법랍 41세, 세수 74세.



덕산 스님은 193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태어났다. 초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스님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해 불교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인 1960년 강원도 건봉사에서 원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72년 천태종 총장조인 상월대조 사에게 건당해 천태종단의 발전에 일조했다.

천태종 입문 후 총무원 교무부장과 사회부장을 거쳐 제1대 교화원장, 제1대 포교원장, 8~12대 천태종 종의회의장을 두루 역임했다. 2004년부터 천태종 원로원장을 맡아왔으며, 2005년 대중사(4급) 법계를 풀수했다.

김주일 기자

“개인 역량 강화가 포교사의 힘”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신임 회장

“국제포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50%가 채 안됩니다. 포교사 역량 확대와 관련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서겠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제8대 회장으로 권영구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웰다잉연구회 회장이 선출됐다. 11월 18일 정기 총회를 통해 선출된 권영구 신임회장은 400여 국제포교사들의 역량발휘에 나선다.

권 회장은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 협력체계 구축, 법인 설립 및 재원 마련 등에 앞서 국제포교사의 자질향상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권영구 신임회장은 “국제포교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포교사들이 여범히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이라며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국제포교사의 업무를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질과 역량 확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지는 서비스업인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권 회장의 철학이 드러난 것. 권 회장은 1969년 산업은행에 입사해 2001년 퇴사할 때 까지 30여 년을 은행가로 살아왔



다. 산업은행 불자회장, 북경한인불자회장 등을 맡으며 불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개인 역량 강화다.

권 회장은 “현장에서 품수를 받은 회원들은 실제상황 체험을 통한 자질향상과 역량발휘에는 개인적 여건에 따라 큰 편지를 지닌다”며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회제공을 하는데 임기 목적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오늘날 리더쉽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국제포교사 발전을 위해 국제포교사들의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구본사주지協 회장 성문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23일 회의를 열고 금산사 원행 스님 후임으로 성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성문 스님은 본지와와 통화에서 “1년 씩 맞는 순환의 장이지만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고견을 취합·정리하는 소임인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종단은 어느 때보다 쇄신을 요구 받고 있는 시점이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견이 종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천천히, 느리게’ 환경 살리는 지름길

아름다운 동행, 환경 토크... 강연·토론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휴대폰이 생기면 일아 줄여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업무는 더 많아졌고, 패스트 푸드는 먹거리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위기의 시대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대화마당이 열렸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11월 2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

장에서 ‘환경 토크- 자연과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회일 환경재단 대표는 한국은 이제 ‘슬로우 라이프’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과정 없이 결과만이 있는 사회는 무자비한 효율의 세계이며 인간조차 결과를 위한 수단이 된다”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의 구성과 창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환경 문제는 이제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들은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

문에 세계의 NGO들이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길 전 예코보타 공동대표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유 위원은 “살림의 가치는 ‘모든 것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작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절이나 명상, 참선 등의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사로잡힌 마음을 돌아보으로써 자신이 수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능한 적게 구입하고 소비하기, 천천히



아름다운 동행은 11월 28일 ‘환경 토크’를 열고 기후 온난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먹고 천천히 걷기, 물과 세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생활습관 갖기 등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신종일 기자

나치 약탈 티베트 불상은 모조품?

아킴 바이어 교수 특강...12일 연세대 도서관서

아킴 바이어(사진)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6시 연세대 도서관 7층에서 열리는 ‘2012 독일인의 밤’에서 ‘아시아의 신화, 우주에서 온 부처의 신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지난 9월 나치 독일 친위 탐사대가 강탈한 티베트 사천왕상이 1000년 전 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아킴 바이어 교수는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이나는 기자

제1회 생명나눔상 이나는 기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 스님)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가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생명나눔상을 개설 본지 이나는 기자(사진)를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생명나눔 측은 “이 상은 매년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기여한 불기협 회원 중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제1회 생명나눔상 수상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장기기증 주지 스님들과 불교계 생명나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현대불교신문 이나는 기자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목적배 교수의 병상일기



10월 21일 | 백원정사에 안거한지도 벌써 삼재가 되었다. 방 번호가 1316이라. 삼보일레 육바라밀행.

고집멸도 부처님의 갈과 바로 깨쳐 이고득락 하여야한다. 즉 고집은 이고하고 멸도는 득락해야한다. 중생은 제 고집 우기기 말고 무자성법을 삶의 길을 삼아 기신·돈각·삼매발현해 자리이타 반어바라밀수행자로 심선계수행자로 살아가세. 여제는 역지 신심 깰지어내어 회암사지 순례함.

10월 22일 | 비몽사몽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 갔네. 방송시간인데. 직방송하네. 건강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비몽사몽간에 양자 챙기나. 우당탕탕 방구방송 나간다.

10월 23일 | 깨쳐 알아있음이 알아맞힘으로 연결되리라 되어야 함인데 반하여 즉 무명과 연결됨으로 몸의 통증이 심하다. 병이란, 무명의 연속 지속을 단속시킴이다.

먼저 번에 다녀간 분이 많다고 하였지만, 일

방적이내 내 쪽에선 부동적이었네. 이젠 내 방향이 있어야 자비의 쌍교통으로 한해를 나리라. 미천의 결심.

10월 24일 | 아직 새벽이다. 아픔은 있다해도 참을 수, 견딜 수, 기다릴 수도 있다. 부처님법 닦고 동산스님의 감·인·대가 심전일조하고 있는 듯 그래도 삶을 뿌리내리게 한다. 의지란 가까운 곳에서 사리즉견하여야 한다. 먼 길에서 방향 말고.

10월 28일 | 부처님 기신하움과 발보리하움 나니, 섬수하여 주소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홀로 일어났으니, 참으로 신이한 일이에요. 오늘 일요일 여보 남대문으로 가서 절그릇 하 게 해서 모두에게 미안 미안해~~

10월 29일 | 부처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루나처럼 이차돈·사명·용성·동산·성철·정담스님을 따르고 한국불교를 재흥하고 싶은 열망에 뒤지지 않으려고, 나는 금정산 범어사에 달려갔다. 자랑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실험은 성공이었다. 육신의 고통을 견디고 수행을 참아 이기고 깨쳐 알아 행화를 기다릴 것이다.

10월 30일 | 병의 치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화연돼야 한다. 건강·치유·간병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간병을 적극적으로

병은 무명의 연속지속을 단속시키는 것 우리 보살 정성·‘문병미소’에 힘 솟네 퇴원... “여러분 법사 보살 고마워요”

로 희생하는 간호자가 있어 보호가 절대적이다. 나는 행복다. 우리 보살 반야심의 정성 노력 그리고 문병 오는 환한 미소가 나를 더욱 힘있게 한다. 용성·동산·성철·미천은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의 정맥인 것이다! 나는 정말 분명하다. 감·인·대의 정신이 바로 삼취정계의 정신임을 절감하였다. 가르침

주신 동산 큰스님 감사합니다!

11월 3일 | 펄떡 팔딱 개구리처럼 다람쥐인양 날렵하게 일어났으니 더더욱 혼자 솟구쳐 앉았으니

아 그대는 초인이다. 니이체의 영광이다. 이기고 있다. 지금은.

11월 5일 | 오늘 오후 퇴원합니다. 잘 선택된 날 보조선님이 인지도자는 인지기라 하였습니다. 나는 법에 의하여 공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 미천산방에서 편한 숨을 쉰다. 35일동안 병원생활 조금 피곤했다. 집에 와서도 숙면을 보고나니 속이 상쾌하다. 몸과 맘이 치유되는 기쁨이라고 느껴진다! 여러분 법사 보살 고마우요?

11월 21일 | 내가 내가 이 감상에 태어나 물이런가 돌인가 흙으로 흐르며 밟혀 온 칠십이리 랑고개를 넘으며 돌아서 간다. 오욕십고개도 무척이나 어렵게 넘든 고개. 또 또 넘어넘어 간다. 그 고개를 넘으며 가네.